

# 盧守愼의 詩世界

— 海東江西詩派의 詩論을 中心으로 —

조 희 창 \*

<目次>

I. 序論	IV. 盧守愼의 漢詩作法
II. 文學的 動向과 역사적 배경	V. 盧守愼 詩의 品格
III. 海東江西詩派의 形成	VI. 結論

<국문 초록>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江西詩派 시집이 간행되고, 강서시파 수용 양상이 확대되면서 성종 연간에는 강서시파라 이를 만든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朴間, 李苻, 朴祥, 鄭士龍, 盧守愼, 黃廷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노수신은 해동강서시파의 일원으로, 강서시파의 鼻祖인 황정건의 “以俗爲雅” 이론을 가장 조선적으로 體現 시킨 사람이다. 소재는 강서시파의 특징인 拗體의 變容을 통하여 慷慨한 기상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비속어, 속담, 지명, 이름, 간지, 일시 등을 과감히 시어로 구사함으로써 優體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오히려 “以俗爲雅”의 경지를 보여 줌으로써 허균이나 홍만중 등 여러 비평자들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句의 조직에 있어 實字와 虛字를 적절히 안배하여 도치된 어문을 통하여 어세를 강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박은, 이행등과 더불어 實字에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典故의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의경을 창출하고 두보 시의 문맥에서 쓰인 시어를 조합하거나 차용하거나 부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 hichang47@paran.com

분적으로 문자를 바꾸어 意境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또 문장을 배열하면서 의경을 적절히 안배하여 기·승·전·결의 격식을 갖추도록 하였다.

노수신은 宦路에 들어선지 3년 만에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22년간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어린 시절부터 영민하여 학업에 충실하고 規矩로서 몸을 단속하여 큰 재목으로 기대 되었으나 정치적 격변을 맞은 것이다. 그의 유배는 정치와의 단절로 인한 인고의 시련기였으나 역설적으로 그 기간 두보와 논어를 이친 번 이상을 읽어 두보에 관한 神韻을 얻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고 논어 등의 여러 책을 섭렵 하여 해박한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당시 기존 성리학의 이기이원론에 정면 도전하여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는 「困知記拔」· 夙興曖昧箴 · 「執中說」· 「人心道心辨」 등의 논문을 유배기간에 발표하여 이황, 기대승, 김인후, 이항등과 수차에 걸쳐 논변하였다. 그의 철학은 기존의 주자학과는 이질적인 나정암의 사상을 수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류들로부터 禪學과 異端에 찌든 학자라는 비판을 받기도하였다.

그의 작품 1,449首 중 1,023首가 유배지 작품이다. 내용은 1) 이별의 情恨과 至親에의 향수, 2) 지기와의 神交를 통한 삶의 위안, 3) 절망의 초극과 학문에의 침잠, 4) 忠君 愛民과 交隣의 정 등으로 구분된다. 소재의 삶은 후반기의 정치적 영광은 차치하더라도 시문학사와 사상사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 해동강 서시파의 일원으로 두보를 가장 조선적으로 체현시킨 공로 외에도 송시의 산문성, 기교주의에 반발하여 음악성과 서정성을 회복하기위한 시적지향으로 唐詩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海東江西詩派의 뒤를 이은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에게 학당의 이론을 전수시킨 항도적 역할을 했던 중심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제어】 湖蘇芝, 海東江西詩派, 唐詩, 以俗爲雅, 性情美學

## I. 序論

조선의 한시는 종종 연간에 큰 성과를 이루어 이행, 박상, 신광한, 김정, 정사룡 등의 대시인들을 배출하였고 다시 宣祖 연간에는 이를 이어 노수신, 황정욱,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 걸출한 시인들을 등장시켰다.<sup>1)</sup>

조선 前期는 唐(宋)詩風을 구사하는 시인들이 종종 나타나는데<sup>2)</sup> 鄭以  
 吾, 李靑, 羅湜, 申光漢, 金淨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들은 蘇軾과 黃庭堅  
 또는 黃正견과 陳師道의 시를 배우려는 움직임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  
 런데 명료하게 黃·陳을 배웠다는 이들은 朴闇, 李苻, 朴祥, 鄭士龍, 盧  
 守愼, 黃廷彧 등이다. 이들을 海東강서시파로 분류한다.

강서시파의 전래는 고려 중기로부터 관련 서적이 수용되고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는 강서시파 시집이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의하여  
 成宗 연간에는 이 땅에 江西詩派라 일컫는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최초 언급한 자는 자하 申緯였다<sup>3)</sup>. 강서시파는 구체적인 詩作法을 제시  
 하여 이를 충실히 배우면 스스로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세인들의 관심과 파급이 용이하였다. 특히 정치적 좌절과 安分, 체념  
 에 처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감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조선 성종에서부터 선조 조에는 海東江西詩派라 이룬만한 시인 그룹  
 이 태동 되는바 朴闇, 李苻, 朴祥, 鄭士龍, 盧守愼, 黃廷彧 등이다. 海東  
 강서시파는 한시작법에 관해 깊이 있게 배운 강서시파의 기법을 수용하  
 고 형식면에서 강서시파의 특질인 拗體를 수용하여 강건한 미감을 거두  
 고 있으며, 奇字의 운용을 특질로 하는 강서시를 배워 술어를 단련하였  
 고, 助字와 僻字 등 특이한 글자를 시어로 구사하기도 하였다. 시어의  
 측면에서는 강서파의 이론인 “以俗爲雅”를 계승하여 비속어와 더 나아  
 가 經典의 구절을 자신의 詩脈에 융합하거나 性理學的 개념어를 시어로  
 구사하여 기발하고 웅장한 의경을 확보하고 있으며 前代 시에서 확보하

1) 『惺叟詩話』, p.317, “我朝詩, 至中廟朝大成 以容齋相倡始. 而朴訥齋祥申企齋  
 光漢金冲庵淨鄭湖陰士龍 竝生一世, 我朝詩, 宣廟朝大備. 盧蘇齋得杜法, 而黃  
 芝川代興, 崔白法唐, 而李益之闡其流 吾亡兄歌行似太白, 妹氏詩恰入盛唐. 其  
 後權汝章晚出, 力追前賢, 可與容齋相肩隨之, 猗歟盛哉”  
 2) 『鶴山樵談』 p.1, “本朝詩學以蘇黃爲主”; 『鶴山樵談』, p.27, “本朝人文則三蘇,  
 詩學黃陳”; 『芝峯類說』, “我東是認多尙蘇黃, 二百年間皆襲一食.”  
 3) 申緯, 『警修堂全藁』 卷48, 「論詩絕句」, “學副眞才一代論, 容齋正覺入禪門.  
 海東亦有江西派, 老樹春陰挹翠軒”

고 있던 지명, 인명, 관명, 일자, 등을 적극 시어로 활용하고 있어 “以俗爲我”의 논리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4)</sup>

조선 시단은 穆陵盛世를 맞아 문운이 화려하게 피어나면서 사람들 간에 미의식인 “性情美學”을 구사하였고, 이 성정미학의 지표는 퇴계의 “溫柔敦厚”와 율곡의 “優柔忠厚”로 요약되는데 사실상 同意異稱이라 할 수 있다<sup>5)</sup>.

한 시대를 풍미한 “성정미학”의 이론적 근거는 소옹(1011-1077)의 外物認識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소옹은 그의 『皇極經世書』에서 觀物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觀物이라 하는 것은 나로써 物을 보는 것이 아니다. 나로써 物을 보는 것이 아니면 物로써 物을 보는 것을 이른다. 이미 物로써 物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사이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我가 人이고 人이 我이며 我와 人이 모두 物임을 알 수 있다.<sup>6)</sup>

결하여 性情論에서는 “物로써 物을 보는 것은 性이며, 나로써 物을 보는 것은 情이다. 性은 공평되고 밝은 것이며, 情은 편벽되고 어두운 것이다.”<sup>7)</sup>라고 하였다. 소옹은 외물인식을 “以我觀物”과 “以物觀物”로 나누어 “以我觀物”의 자세를 중시하고 있다. “이아관물”은 자신의 주관적 정의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고 곧 我가 개입됨을 말한다. 반대

4) 조선전기의 漢文學史 연구는 임형택,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沈慶昊, 「朝鮮前期 士大夫의 漢文文學과 國文文學」, 『한국사상대계』 4, 精神文化研究院.;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4. 등이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5) 李敏弘, 『朝鮮中期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成均館大學校 출판부, 1993, p.47, p.329.

6) 昭雍, 『皇極經世書』, 「觀物內篇」 12, “所以謂之反觀者, 不以我觀物也. 不以我觀物者, 以物觀物之謂也. 既能以物觀物, 又安有我於其間哉. 是知我亦人也, 人亦我也, 我與人皆物也.”

7) 昭雍, 『皇極經世書』, 「觀物外篇」 下, “以物觀物性也, 以我觀物情也. 性公而明, 情偏而暗.”

로 “以物觀物”은 객관적 자세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관적인 我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곧 두 景物認識은 我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性理學的 사유체제하에서는 대체로 性是 天理이고 지순하며 性이 발하여 도심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 情은 선악이 섞여있어 인욕이라 생각했다.<sup>8)</sup> 그러므로 소옹은 性是 公而明 이라하고 情은 偏而暗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以我觀物”은 주관정의인 我가 개입하여 偏僻되고 어두워 道體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한 것이며 16세기 사람들이 이를 지지하여 ‘以物觀物的 外物認識’을 문학에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문학은 情이 배제된 理智的 정서로만 만들어질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학의 장르는 情과의 교합에 있기 때문이다. 宋詩가 理致로 시를 썼기 때문에 이 비평을 면키 어려웠다는 말과 합치되는 지적이다. 주관정의인 我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어졌으므로 비록 감정이 시에 나타나더라도 극히 절제되어 거울이 사물에 비추고 종이 소리에 울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비단 我가 개입되지 않아 道體에는 해가 되지 않지만 정이 배제된 시는 性情美學의 정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소옹은 詩에는 情이 없을 수 없고 다만 公而明으로 수양하면 슬퍼하되 상함이 없고 즐거워하되 음탕함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조선 사람들이 의식하여 소옹이 말하는 公而明하되 속되지 않는 詩意識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性情之情의 구현이다.

王國維는 『人間詞話』에서 無我和 有我的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유아지경은 나로써 物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物我에 모든 나의 색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무아지경은 物로써 物을 보는 것이니 어떤 것이 내가되며 어떤 것이 物이되는지 알 수 없다[無我之境, 以物觀物, 故不知何者爲我, 何者爲物]”<sup>9)</sup>고 하며, 有我之境과 無我之境의 예문을 제

8) 宋彙七, 「羅整庵의 「困知記」와 李栗谷, 奇大升의 主氣論」, 『韓國의 哲學』 21집, 慶北大學校 退溪學研究所, 1993, p.9.

9) 王國維, 『人間詞話』, 『中國歷代文論選』 제4책, p.371. “有有雅之境 有無我之境. 無我之境,以物觀物. 故不知何者爲我, 何者爲物”

시하였다.

淚眼問花花不語	눈물 머금은 눈으로 꽃에게 물어도 꽃은 말이 없고
亂紅飛過鞦韆去	어지러운 꽃잎만 그네 뒤통 날아가네.

可堪孤館閉春寒	감당할 수 있으랴 외로운 역관은 봄추위에 닫혀있고
杜鵑聲裏斜陽暮	두견새 울음소리에 해는 비끼어 어두웁네.

위 시들은 我에 대한 정감이 배어있고 주체의식이 뚜렷하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꽃에게 물어보는 我에 대한 주관정의가 뚜렷하다. 그러므로 위 2수는 有我之境의 시이다.

采菊東籬下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고
悠然見南山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네.

寒波澹澹起	차가운 파도는 출렁출렁 일렁이는데
白鳥悠悠下	하이얀 새는 유유히 내려온다.

위 五言詩에서 보면 풍경만 제시되고 주관정의인 我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 我的 유무를 아우를 수가 없다. 왕국유의 有我和 無我的 경계는 주관정의인 我的 개입여부에 있지만 실체는 모호하다. 위 두 개의 시에서 보듯이 我가 직시되지 않았지만 은연 중 我가 내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원형패는 이에 대한 주광잠의 견해를 들어 유아지경은 사실은 무아지경이며 그의 무아지경은 유아지경이라는 것이다.<sup>10)</sup> 결국 소옹의 이론대로 “哀而不傷, 樂而不淫” 하여 개인의 주관이 극히 제한되고 거울에 사물이 비추듯 해야 한다는 것이 無我的 정설인 것이다.

---

10) 원형패, 『中國詩歌藝術研究』, 亞細亞文化社, 1990, p.67.에 의하면 이에 대한 주광잠의 견해를 예로 들고 있다. 왕국유의 有我之境은 사실 無我之境이며, 그의 無我之境은 有我之境이라는 것이다. 16세기 조선 사대부의 정서가 왕국유와 같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정미학의 이론적 근거는 율곡이 제시한 “溫柔敦厚”이다. 그러나 소재의 시는 “溫柔敦厚”와는 현격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그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자탄, 자조, 좌절 그리고 눈물이었음에 비추어 “온유 돈후”를 지향하는 “性情美學”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소재 삶의 상황으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지향하는 학문적 경향에서 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李朝의 기존 철학은 理氣二元論의 주기론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재는 理氣一元論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원론은 보편원리를 주장하여 보수적 견해가 있고 일원론은 상황 추이에 따라 변화 발전을 용인하고 있다. 詩作에 있어서 公而明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원론적 主理論에서는 人慾이 부정되는 대신 일원론에서는 인욕이 許與되며 기존성리학에서는 도심과 인심을 모두 已發로 보았지만 소재는 도심은 未發로 인심은 已發로 파악했다. 기존 논리의 道心은 純善함으로 긍정적 존재이나 인심은 兼善하여 선과 악을 겸하였으므로 부정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氣質之性인 인심은 存養省察이나 去人慾의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재는 이미 도심은 善惡이 있을 수 없음으로 아예 선악이라는 개념자체가 있을 수 없고 道心이 이발하여 인심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도심과 인심은 모두 用이라는 기존 논리에 반대하고 도심은 體이고 인심은 用이라는 것이다. 인심은 善할 수도 惡할 수도 있으나 中絶, 不中絶에 따라 선 또는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인심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며 性에서 나온 당연한 인간의 정감이므로 肯定的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는 견해를 밝히자 기존 성리학계에 세찬 반발을 초래하였다.<sup>11)</sup>

소재는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두 가지는 본성이라고 선언한다.

11) 소재가 「困知記」를 통하여 整養 이론을 수용하자 조선학계에 일대 논쟁이 일어 理氣二元論的 主理論은 그 체계가 해체되고 主氣論的 사상체계로 재편성되거나 主氣論的 사상체계에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결국 退溪의 理氣二元論的 主氣論은 栗谷, 奇大升의 一元論的 主氣論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그리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고 했던 증용의 사유를 계승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이 道이니 본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재단하고 마름질해서 (修)道에 맞추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sup>12)</sup>

욕망 자체를 수용하는 노수신의 思惟는 李滉과 추종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게 되며 奇大升은 시에 和韻하면서 異端에 물들어 성인의 도를 더럽히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격렬히 성토했다.<sup>13)</sup>

욕망의 긍정이 노수신 사상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은 고도 謫居에서 19년을 유리된 공간생활의 桎梏을 통하여 발출, 근원으로부터 엄격하게 구별되고 생리적인 욕망, 감정과는 분리되어 도덕의식이 욕망과 감정을 억제하고 검열하게 되는 주희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도심과 인심이 한 마음 안에 대립되어 존재하는 두 마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었기에 인심도심을 未發已發 性情體用의 관계로 해석하는 整養의 논의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소재는 애써 以物觀物的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人慾을 肯定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재는 인욕을 긍정하면서도 도심이 인심으로 발할 때 中絶인가 不中絶인가에 따라 선과 악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여 인심의 극단을 통제하였다. 소재의 以我觀物的 자세의 원인은 그의 학문적 성향에서 찾을 수가 있다. 율곡은 경세제민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充溢한 반면 소재는 정치 환경이 개인의 문제 해결에

12) 이는 朱熹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朱熹는 본성을 마름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본성을 마름질 하는 것은 싹을 뽑아 올린 것이라고 하였다.(中庸集註 首章의 細註 “朱子曰 性不容修, 修是揠苗”)

13) 奇大升, 『高峰集』 속집 卷1, 「次蘇齋韻」, “慾者人知性, 人皆不可無, 斯言何所出, 剩語恐相愚, 有物當知則, 如魚必在湖, 同行情却異, 宗擊正堪吁”.; “性惡苟卿說, 慾論何代無, 機鋒釋氏捷, 科級聖人愚, 盧世天垂日, 誣民地托湖, 能言吾豈敢, 獨立負長吁”.; “陰陽豈是一, 理氣不容歧, 見一元乖實, 言歧却失辭, 幾人迷似悟, 今日合還離, 錯仰猶瞻忽, 前賢亦有疑”.; “率性斯爲道, 亡羊問幾歧, 見差應害事, 心謬可微辭, 聖學精粗合, 禪家體用離, 百年須有志, 三日話無疑”

급급하였으므로 經世濟民 할 겨를이 없었고 유배 초기에는 道體를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의 인생 역정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 문학적 지표가 완성해 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결국 소재는 一元論의 사고로 詩的 理念 보다는 그 상황을 중시하였으며 인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情感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표출했다고 할 것이다. 소재사상은 강서시과의 인육을 긍정하는 논리에 융합되어 해동강서시과의 한 축으로 남게 된 것이다.

## II. 文學的 動向과 역사적 배경

李朝는 국초에 建國勢力의 핵심인 정도전 등을 중심으로 문학에 있어서 道를 중시하여 文은 道를 전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日月星辰天地文也	해와 달 별은 천지의 문이요
山川草木地之文也	산천초목은 땅의 문이며
詩書禮樂人之文也	시서예악은 사람의 문이다.

“하늘은 氣로써, 땅은 形으로써, 사람은 道로써 이루어지니 그러므로 文이란 道를 싣는 그릇이다.”<sup>15)</sup>라고 文을 정의하였다.

사람과 또는 도학파들은 文을 載道之器로 파악하려는 송의 주자학의 영향으로 인해 經學 내지 성리학을 위주로 하여 道學과 文學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상적 사유를 지배하였다.

소재가 살다간 16C는 朝鮮 詩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中宗代 이후 조선왕조는 계속 번영을 누렸으면서도 안으로 모순이

14) 金昌協, 『農巖集』 卷34, 「雜識」, “其沈鬱. 老健. 莽宕. 悲壯, 深得老杜氣力, 後來學社者莫能及. 蓋其功力深至, 得於憂患者爲多.”  
 15) 鄭道傳, 『東文選』 卷89, 「京山李子安陶隱文集序」, “然天以氣, 地以形而 人則以道 故曰文字載道之器”

누적되었다. 기존의 집권세력인 勳舊 詞章派와 新進士類인 士林派간의 대립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士禍가 일어났다.

15C 말엽에 이르러서 詞章派와 士林派는 이론적으로 대립하게 되었고 中宗 反正 이후 훈구파들이 사화를 일으켜 사림파들을 축출하면서 勳舊派가 우세하게 되었으나 道學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조정에서 축출되었다고 하더라도 在野에서의 세력은 더욱 확대되어 특히 일부 朱子 학자들은 文學이 人心을 성하게 하여 道心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文學 不正論이라고 할 만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sup>16)</sup>

洪萬宗은 이와 관련하여 “시는 풍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지 사물이나 경색을 읊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였다.<sup>17)</sup> 결국 이러한 추세 속에 鮮初부터 宣祖-光海 이전의 시기까지는 대체로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宋의 詩風이 존중되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시문학은 남송의 성리학을 두루 익혀 송시가 주조였는데도, 점차 당의 性情을 주로 다루는 북고적인 문풍이 나돌았으니, 이는 고려 중엽 이래 소식을 두루 익히다가 만당 두목의 『반천집』을 비롯하여 두보의 『두공부 초당시전』과 『찬주분류 두시』가 신간되고, 아울러 세종25년(1443) 4월초에는 두시의 주석을 위해 내외의 주 두서를 사들이라는 명령까지 있고 두시의 주석을 위해 국내의 두시학자를 총 동원하여 마침내 『杜詩諺解』를 刊行한 사실로도 익히 짐작되는 당시 풍조였다.

許筠은 “우리나라의 시는 黃·蘇를 위주로 한다.”<sup>18)</sup>라고 하였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조 초기부터 中·明宗까지는 高麗 詩風의 연장이라고 볼 것이어서 宋詩 文學을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점차 宣祖朝에 이르러 학풍이 사변적인 관념적 경향으로 흐르게 되어 현실생활과의 乖離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分黨으로 인한 黨爭,

16) 全鑿大 外, 『韓國古典詩學史』, 기린원, 1988, pp.239-240.

17) 洪萬宗, 『詩話叢林』, 『洪萬宗全集』 下, 太學社, 1980, p.610.

18) 許筠, 『許筠全集』, 『鶴山樵談』,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p.345, “本朝詩學以蘇黃爲主”

壬辰倭亂 등의 시대적 혼란으로 인한 학문의 방향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제기되어 중종조 후에 문인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詩文學은 興起하였고 시풍의 변화도 초래되었다. 道學의 영향을 받은 宋詩는 자연히 논리적이고 사변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주로 性理學的 사고방식으로 일관하였다. 송의 시풍은 性理學의 사상적 배경 아래에서 시의 美意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사상의 기교와는 상관없는 자구마다 의리를 명백히 함에 집착하는 一字一句 상의 彫琢에만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sup>19)</sup>.

허균은 이러한 당시의 宋 詩風 일변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 하였다.

本朝의 詩學은 蘇東坡와 黃山谷을 주로 삼았다. 비록 景凜한 儒者일지라도 또한 습속에 빠졌으며, 그 나머지 세상에 알려진 자들은 모두 그 찌꺼기를 먹어 腐牌와 坊語를 지어 놓았으니 싫증이 난다.<sup>20)</sup>

점차 관념적이고 기교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宋詩風은 시가 주는 자연스런 감동과는 멀어지고 인간의 순수한 정감이나 생활에서의 절실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學問的, 文學的 배경으로 인해 唐詩風으로 변환하였는데, 이는 金昌協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穆廟의 때에 이르러 文士들이 성하게 일어나 唐詩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고 중국의 王世貞, 李攀龍의 시가 점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드디어 바라고 사모하여 모방하기 시작하며 精巧하게 되기에 힘썼다.<sup>21)</sup>

이와 같이 學唐의 풍조는 宣祖 때에 이르러 시풍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許筠은 그의 저서 『惺叟詩話』를 통하여 唐詩風으로 이름을 떨친

19) 全鑿大 外, 앞의 책, p.275.

20) 許筠, 『許筠全集』, 「鶴山樵談」, p.345, “本朝詩學 以蘇黃爲主 雖景凜大其亦科白 其餘鳴于世者 率綴其粗粕 以造腐牌坊語 讀之可厭”

21) 金昌協, 『農巖集』 卷34, 「雜識」 外篇, “至穆廟之世 文士蔚興 學唐者寢多. 中朝王李之詩又稍稍東來 以始希慕倣 鍛鍊精工”

三唐詩人の 출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는 宣祖代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다. 盧蘇齋가 杜甫의 법을 얻었고 黃芝川이 대를 이어 일어났다. 崔孤竹과 白玉峰이 唐詩를 배우고 李益之가 그 흐름을 밝혔다.<sup>22)</sup>

선조 때에는 이미 唐詩風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인물로 盧蘇齋와 黃芝川 및 三唐詩人을 거론하고 있다. 이로 볼 때 宋詩風에서 唐詩風으로의 전환함에 있어 蘇齋의 위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成宗朝에 시작된 學唐은 宣祖 때에 이르러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는데 유배기에 杜甫에 沈潛되어있던 소재는 杜甫의 詩法을 얻었고, 白光勳, 崔慶昌과 오랫동안 師友關係를 맺으며 그들의 시풍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학당의 앞뒤를 잇고 삼당시인에게 큰 영향을 준 蘇齋의 研究는 조선조 시풍의 변화를 조명하는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Ⅲ. 海東江西詩派의 形成

조선 초 중기 漢詩는 中宗朝를 전후하여 크게 융성 李荇, 朴祥, 申光漢, 金淨, 鄭士龍 등의 대시인들을 내었고, 이어서 宣祖 연간에는 盧守愼, 黃廷彧, 崔慶昌, 白光勳, 李達 등의 걸출한 시인들을 배출하였다. 우리 한시는 고려 이후로 4, 5차례의 변천을 거치며 蘇軾을 위주로 한 宋詩風의 연장선상에 있다가 풍상과 함께 黃庭堅과 陳師道를 배우게 되고 다시 변하여 唐詩를 배우게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23)</sup> 조선 전기에 唐

22) 許筠, 『惺叟詩話』, p.317.

23) 許筠, 『惺叟詩話』, p.317, “我朝詩, 至中廟朝大成 以容齋相倡始. 而朴訥齋祥申企齋光漢金沖庵淨鄭湖陰士龍 竝生一世, 我朝詩, 宣廟朝大備. 盧蘇齋得杜法, 而黃芝川代興, 崔白法唐, 而李益之闡其流 吾亡兄歌行似太白, 妹氏詩恰入

詩風을 구사하려는 시인들이 다소 등장되지만<sup>24)</sup> 漢詩史의 주요 흐름은 蘇軾과 黃庭堅, 또는 황정견과 陳師道의 추종이었다. 황정견과 진사도를 배웠던 일군의 인물로는 朴闇, 李荇, 朴祥, 鄭士龍, 盧守愼, 黃廷彧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당대의 대표 시인이며 조선 문단의 기림을 받는 인물들이다. 이들 시인들은 문학사적으로 구분하여 官人 또는 館閣 문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황정견과 진사도를 배운 문인 중 朴祥을 제외한 모두가 大提學을 역임한 경력자이면서도 그들의 宦路는 거듭되는 탄핵과 유배로 인하여 실의와 좌절의 연속이었음에 비추어 이전 徐居正으로 대표되는 館閣文人과는 뚜렷이 구분된다<sup>25)</sup>. 오히려 진사도와 황정견을 대표로하는 강서시파의 영향 하에서 접근되는 것이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海東江西詩派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 자하 申緯이며,<sup>26)</sup> 金台俊이 1931년 조선어학회에서 박은, 이행, 정사룡, 노수신, 박상, 성현, 신광한, 황정옥 등을 해동강서시파로 규정하였고<sup>27)</sup> 이어서 李家源,<sup>28)</sup> 閔丙秀<sup>29)</sup> 등이 해동강서시파라는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가원은 朴闇과 李荇만을 해동강서시파로 파악하였고 민병수는 박은과 이행, 정사룡, 황정옥 등을 해동강서시파로 구분하여 구성에 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들에 대한 해동강서시파로 구분되어지는 구체적 면모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盛唐. 其後權汝章晚出, 力追前賢, 可與容齋相肩隨之, 猗歟盛哉”

- 24) 鄭以吾, 李胄, 羅湜, 申光漢, 金淨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 25) 임형택,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沈慶昊, 「朝鮮前期 士大夫의 漢文文學과 國文文學」, 『한국사상대계』 4, 精神文化研究院.;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4. 등이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 26) 申緯, 『警修堂全藁』 卷48, 「論詩絕句」, “學副眞才一代論, 容齋正覺入禪門, 海東亦有江西派, 老樹春陰挹翠軒”
- 27)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朝鮮語文叢書』 1, 朝鮮語學會, 1931.
- 28)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普成文化史, 1988.
- 29) 閔炳秀, 「朝鮮前期의 漢詩研究」, 『漢文教育研究』 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86.

江西詩派란 의미는 중국에서 시를 지으면서 가장 宋詩의 특질을 구현한 황정견, 진사도 이하 일군을 이르는 것이다. 그들이 詩社 등의 結社體가 아니면서도 黃·陳을 배운 것으로 강서시파를 구분하였듯이 해동강서시파의 구분 또한 이를 준용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江西詩派라는 명칭은 呂本中の 「江西詩派社宗派圖」에서 출발한 것이며<sup>30)</sup> 어떠한 결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呂本中이 유사한 경향의 시풍을 가진 자들을 모아 강서시파라는 하나의 流派를 규정하였듯이 海東江西詩派 역시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유사한 시풍을 견지한 일군의 시인들을 가리키는바 해동강서시파는 黃庭堅, 陳師道, 陳興義 등의 개별 작가들의 시풍이나 창작 방법론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일 수밖에 없다.

우리 한시가 成宗에서 宣祖 연간에 이르는 시기는 황정견과 진사도의 영향권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작가군을 지칭함이 옳을 듯하다.

해동강서시파라는 명칭의 사용과 대상에 대한 언급은 申緯의 「論詩絕句」에서 부터이다.

學副眞才一代論	학문의 높은 제주 시대에 논하면
容齋正覺入禪門	용재가 바르게 깨달아 선문에 들었도다.
海東亦有江西派	해동에도 또한 강서파가 있으니,
老樹春陰挹翠軒	늙은 나무 봄 그늘에 읊취헌이라. <sup>31)</sup>

申緯는 여기에서 읊취헌 朴間만을 해동강서시파라고 하고 있다. 李荇

30) 중국에서 江西詩派 研究는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남송의 呂本中에 의한 『江西詩社宗派圖』를 작성하여 江西詩派의 대상을 어느 정도 확정하였다. 여기에 들어있는 시인들을 강서시파로 볼 수 있으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呂本中の 江西詩派 大系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1) 申緯, 『警修堂全藁』 卷48, 「論詩絕句」

은 佛家에 비유하여 정통임을 말한 것이며 위 그룹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의 견해로 보건대 조선에서 강서시파의 추종 인물로 朴闇 등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海東江西詩派라는 항목을 설정했던 사람은 金台俊이다. 그는 해동강서시파에 朴闇, 李荇, 鄭士龍, 盧守愼, 黃庭彧, 朴祥, 成倪, 申光漢 등을 지칭하였다.

이조의 초기는 麗末의 류풍을 계승하여 모다 동파를 專主 하였스니 徐四家 이후 시로써 일시에 추종된 읍취헌 박은과 용재 이행이가 가장 그중에 巨擘이었으며, 鄭士龍, 盧守愼(蘇齋), 朴祥(訥齋), 成倪(虛白), 申光漢(駱峯), 黃庭彧(芝川) 등이 있다.<sup>32)</sup>

金台俊 이후 李家源은 해동강서시파에 朴闇과 李荇만을 포함시키고 있으며<sup>33)</sup>, 閔丙秀는 박은과 이행, 황정옥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sup>34)</sup>. 李家源은 신위의 「論詩絕句」를 참작하였던 것이며 閔丙秀는 박상과 노수신을 제외하고 있는데 박상은 盛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노수신은 두시를 典範하였다는 기록 때문이다.<sup>35)</sup> 다음은 강서시파를 그들이 어떻게 배웠는가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① “조선조의 詩體는 4-5번 이상 변했다. 조선 초에는 고려시대의 여풍을 이어 순전히 소식을 배웠다. 成宗 연간에 이르러 이행이 대성하였고, 그 중간에 황정건을 참작한 것으로 박은의 재주가 있었으니 실로 300년에 한 번 나온 사람이라 하겠다. 또 변하여 황정건과 진사도를 오로지 배웠으니 정사룡, 노수신, 황정옥이 힘차게 나란히 하였다. 또 변하여 당시의 정도로 돌아갔는데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이 가장 뛰어난 자였다.<sup>36)</sup>

32) 金台俊, 앞 책, p.126.

33)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普成文化社, 1980.

34) 閔丙秀, 「朝鮮前期의 漢詩研究」, 『漢文教育研究』 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86.

35) 朴祥의 盛唐崇尚은 『裨官雜記』의 “乙卯年間, 訥齋冲菴諸公, 詩尙盛唐, 文尙西京”이라는 기록에 보이며 노수신의 두보를 배웠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보이고 『惺叟詩話』, p.317, “盧蘇齋得杜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행과 정사룡의 시는 대개 소식과 황정건을 배운 것이다. 정사룡이 문기를 “사람들이 모두 내가 소식과 황정건을 배웠다고 하면서, 공이 소식과 황정건을 배웠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이행이 답하기를 “그대는 그들의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만 나는 그 뜻과 그 격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정사룡이 그 말에 수긍하였다.<sup>37)</sup>

이로 미루어 朴闇, 李荇, 朴祥, 鄭士龍, 盧守愼, 黃庭彧 등이 황정건과 진사도를 배웠음이 확인되고 있음으로 海東江西詩派라 지칭함에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노수신의 「送盧子平赴東來」에 대한 『國朝詩刪』의 평어는 ‘換杜之胎’와 ‘自出機杼’라 하는 바 이를 미루어 볼 때 노수신은 黃庭堅을 수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換杜之胎’는 杜甫의 시를 바탕으로 하여 황정건이 이른바 ‘換骨脫胎’를 이루었다는 말이며 ‘自出機杼’는 황정건에 대한 후대의 評語이므로 허균이 시평한대로 노수신이 황정건처럼 일가를 이루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 소재는 스스로 「復次蘇彥謙重惠韻」에서처럼 늘 籟瑗의 예순 살 변화를 좋아하였고 공부는 神奇를 추종하는데 이 神奇는 강서시파의 특징적인 이론이다.

해동강서시파는 漢詩 作法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 강서시파를 배워 높은 수준의 한시를 제작해 내었다. 해동강서시파는 강서시파의 특질인 拗體를 수용하여 强健한 미감을 거두고 있으며, 奇字의 운용을 특질로 하는 江西詩를 배워 述語를 단련하고 助字와 僻字 등 특이한 글자를 시어로 구사하였다. 특히 강서시파의 “以俗爲雅”를 계승하여 속담이나 비

36) 『西浦漫評』, p.619, “本朝詩體不啻四五變 國初承勝國之緒, 純學東坡, 以迄於宣靖, 惟容齋稱大成焉. 中間參以豫章, 則翠軒之才. 實三百年一人. 又變而專工黃陳, 則湖蘇芝鼎足雄峙. 又變而反正於唐, 則崔白李其粹然者也.”

37) 『芝峯類說』 卷9, “李容齋鄭湖陰詩, 大抵學蘇黃者也, 湖陰問曰, ‘人皆謂余學蘇黃, 而不謂公學蘇黃, 何也?’ 容齋答曰, ‘君用其文字, 故人見而易知. 我取其意格, 故人不知之’ 湖陰伏其言.”

속한 표현을 시어로 활용하였고, 경전이나 性理學적 개념어를 시어로 선택하여 奇拔하고 雄麗한 의경을 확보하였으며,<sup>38)</sup> 이전까지 금기시되던 지명이나 인명, 관명 등을 수용하여 주체적인 시의 창작을 이루어낸 것이다. 典故의 활용을 통하여 屈原이나 宋玉 등의 울분과 慷慨를 자신의 처지에 대입하고 반영하여 澤畔吟의 시경을 묘사하였다.

노수신의 시는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아 기이하면서도 웅장한 미감을 주는 詩作과 唐詩의 웅장하고 풍격이 드러나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20여 년간 진도에 유배된 시기를 杜甫에 침잠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워 결국 강서시파의 유형과 같아진 것이 소재 시의 특징이다. 해동강서시파는 唐 詩風을 겸하고 있음을 소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시대상황과 시류에 따라 宋詩를 배우고 이 바탕위에 唐詩를 접목한 것이다. 그 뒤를 이은 宣祖 이후 崔慶昌, 白光勳, 李達 등 三唐 派에 의하여 唐詩가 새로운 詩流로 지평을 열게 되었다.

#### IV. 盧守愼의 漢詩作法

황정견은 두보를 정점으로 하는 옛 시인들의 장점을 두루 섭렵하여 이를 응용하여 새로움을 창출하는 “以古爲新”, 비속한 표현을 이용하여 우아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以俗爲雅” 혹은 “點綴成金”의 작법을 제창하였다.<sup>39)</sup>

38) 성리학적 개념어를 시어로 구사하여 사실이나 경물을 묘사하는 것도 해동 강서시파의 독특한 작법이였다. 특히 이의 경향이 가장 강한 사람은 黃廷彥이었으며 芝川은 기묘한 경치를 묘사할 때 성리학적 용어를 구사하여 추상화된 심상을 구사한 반면(「次興德培風軒韻」의 頸聯 참조) 소재는 철학적 개념어를 시어로 구사하여 사물의 원리와 현상을 對偶로 並置시켜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였다.(「彈琴臺用訥齋韻」 頸聯 참조)

39) 『黃山谷詩集注』 卷12, 「內集」, 「再次韻并引」, 江西派 연구자 대부분이 이 두 가지를 黃庭堅 시의 핵심으로 들고 있다. “以俗爲雅, 以故爲新, 百戰百勝, 如孫吳之兵, 棘端可以破鏃, 如甘蠅飛衛之射, 此詩人之奇也.”

이를 위해 두보의 후기 詩에 나타나는 拗體를 구사하여 생경한 율격을 구사하였고, 글자운용에는 까다롭고 잘 쓰지 않는 글자를 즐겨 쓰고, 운자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狹韻이나 窄韻을 즐겨 썼다. 용사에 있어서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窮僻 한 것을 많이 활용하였고, 고문의 작법을 응용하여 산문처럼 시도 하나의 포석 하에 정연히 배열하였다.

황정건은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창작에 임하였고 진사도는 황산곡 시론의 핵심을 계승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sup>40)</sup> 현대 강서시파의 詩作 역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강서시파의 공통되는 특질은 (1) 換骨脫胎 등의 논리로 모의를 좋아한 점, (2) 拗體를 자주 구사한 점, (3) 用辭가 잦다는 점, (4) 기이함을 좋아한다는 점, (5) 생경한 것을 숭상한다는 것, (6) 律詩와 古詩를 모두 중시한 점, (7) 형식과 내용을 모두 중시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sup>41)</sup>

시의 특질로는 (1) 詩法에서 두보를 모범으로 한다는 점, (2) 主題에서는 정치적 풍자보다는 인생과 자아에 대한 성찰, 일상적인 삶을 노래한다는 것, (3) 풍격에서는 “瘳硬”, “勁健” 등을 공통으로 한다는 점이 강서시파의 공통의 특질이지만 이 위에 독자적인 풍격을 쌓아 각자의 일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해동강서시파의 시세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서파의 시법을 수용하고 변용하여 나름의 시를 창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재가 이룩한 개성적인 시세계를 살핀다.

노수신이 남기고간 작품은 허균에 의하여 높이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國朝詩刪』에는 그의 작품이 매우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볼 때 허균은 아마도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본다. 노수신의 시는 두 계열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아 기이하면 서도 웅장한 미감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보의 시풍에 접근하여 唐

40) 崔禁玉, 『陳師道詩研究』,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3.

41) 梁昆, 『宋詩派別論』, 東昇出版社, 民國69年.

詩의 맑고 웅장한 風格이 드러나는 것이다. 소재의 시는 黃·陳의 시법을 배우기보다는 두보를 통해 습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것이 다른 해동강서시파와 다른 점이다. 朴聞이 황정건을 배워 이를 따랐고 李苻은 황정건을 배웠으면서도 나름의 길을 개척했고 정사룡 역시 황정건을 배우면서 황정건이 계승한 이상은을 겸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노수신은 황정건과 진사도가 이루려 했던 두보의 경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오르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상당수준의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 拗體의 시도

율격적인 면에서 강서시파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요체의 구사가 능했다는 데 있다. 요체는 平聲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仄聲을 두거나 측성의 위치에 平聲을 두어 律格의 참신성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聲調에는 平聲, 上聲, 去聲, 入聲의 네 가지가 있는데, 평성은 그대로 平聲이라 말하는데 반하여 上, 去, 入聲의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仄聲이라고 말한다. 平仄法은 곧 시구의 어조를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平仄의 字와 仄聲의 字를 적당하게 어울려 쓰는 법도를 말하는 것이다.<sup>42)</sup> 그런데 노수신은 요체에 능하였던 두시를 배우면서 자신의 杜詩에도 요체를 자주 구사하여 박은과 더불어 요체의 구사에 가장 능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수신의 시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五言에서 7구의 제3자와 제4자, 七言에서 제5자와 제6자의 平仄을 바꾸는 일이다. 다음의 예가 그러한 유형이다.

- ① “東風壯夫淚 一世在桐山” 「挽 金大諫 鸞祥」의 尾聯  
(平平仄平仄, 仄仄仄平平)
- ② “承家有龍虎 遺德見哀榮” 「挽 李政丞鐸」의 尾聯  
(平平仄平仄, 平仄仄平平)

42) 文璇奎, 『概論과 史』, 『韓國漢文學』, <詩의 本質>, p.74. 二友出版社.

- ③ “相看意中友, 白髮滿頭生” 送 李欽哉憲國」의 尾聯  
(平平仄仄仄 仄仄仄平平)
- ④ “淒涼玉堂月 只照舊心知” 「玉堂 看李宋二先生詩次韻偶感」의 尾聯  
(平平仄仄仄 仄仄仄平平)

이러한 예가 미련의 上句에 집중되어 있어 시상 종결방식으로 이 방식의 요체가 구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대부분 上句와 下句가 한꺼번에 익히도록 되어있는 聯綿句로 되어 있다. 또 慷慨한 정을 토로하고 있어 요체가 내용과 句法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五言律詩에서 제5자의 仄仄를 맞바꾸어 孤平과 孤仄이 되도록 하는 것도 노수신의 拗體에서 자주 나타난다.

- ① “一老實間世 兩南還一時” 「玉堂看李宋二先生詩次韻寓感」의 首聯  
(仄仄仄平仄 仄平平仄平)
- ② “秋風乍起燕如客 晚雨暴過蟬若狂” 「送盧子平坡赴東萊」의 尾聯  
(平平仄仄仄平仄 仄仄仄平平仄平)
- ③ “世紛錯落了無日 歸夢悠揚尋幾年” 「次俞杞城泓江亭韻」의 頷聯  
(仄平仄仄仄平仄 平仄平平平仄平)

위의 예들은 이러한 拗의 구사로 제6자가 孤平과 孤仄이 되어 특이한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③은 上句와 下句의 제1자를 對句相救한 예로 더욱 기이한 미감을 형성하고 있다. 노수신 시에는 이밖에도 특이한 요체가 구사된 예가 많다. 여타의 해동강서파에 비해 拗體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sup>43)</sup>

## 2. 과감한 詩語 選擇 (詩語의 확장)

강서시파의 이론가운데 중심이론은 “以俗爲雅”이다. 황산곡의 논리는

43) 李鐘默의 『海東江西詩派研究』 참조.

다음과 같다.

비속한 것을 이용하여 우아하게 하고 옛말을 이용하여 새롭게 하는 것은 손자와 오기의 병법처럼 백전백승의 비결이다. 가시 끝으로 화살촉을 부술 수 있어 마치 감승이 비위의 겨냥을 피해 잘 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시의 기이함이다.<sup>44)</sup>

황정건의 「獻呈孔懿父」에서 “管城子無食肉相, 孔方兄有絕交書”라는 표현 역시 비속한 표현의 좋은 예이다.<sup>45)</sup>

황정건과 이를 잇는 진사도는 小說體의 용어나 잡극에서 볼 수 있는 용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성어나 속담, 민요의 말, 등을 즐겨 썼는데 해동강서시파 역시 이를 수용하여 자신들의 독특한 미학을 이루어내었다.

소재시의 특징으로는 지명, 인명, 일시, 간지 등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시어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선의 지명이 시어로 등장된 것은 해동강서시파들의 詩作에서부터이다. 이전에 간혹 사용의 흔적이 보이나 해동강서시파의 논리에 의하여 조선지명의 시어화가 확대되었는데 속어로 금기시되어 왔던 것이다.

고죽 최경창 등이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 지명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시를 지을 때 지명을 구사할 수 없음을 늘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노수신의 시를 보니 길은 평구역에 다하고, 강은 판사정에 깊다고 하였는데, 상구와 하구가 모두 우리말을 구사하면서도 편안하게 안정되어 있으니 이에 대가의 솜씨가 남들과 다름을 알겠다.”<sup>46)</sup>

44) 『黃山谷詩集注』 卷12, 「內卷」, 「再次韻并引」, “以俗爲雅, 以故爲新, 百戰百勝, 如孫吳之兵, 棘端可以破鏃, 如甘蠅飛衛之射, 次詩之奇也.”

45) 吳台錫, 『黃庭堅 詩研究』, 경북대출판부, 1991, pp.271-272.

46) “崔孤竹輩嘗曰, ‘我國地名, 不及中原故作詩不得使地名, 每以爲限. 及見蘇齋詩. 有路盡平邱驛, 江深判事亭 上下句, 皆使俚語, 而句法穩著, 及知大家手者異於他人也.’”

세상에서 “중국의 지명은 모두 문자여서 시에 들어가면 문득 아름다우나 예를 들어 구강, 봄풀 지난 후 삼협 저녁 배 앞이라 와 기운은 운몽택에 피어나고 물결은 악양성을 흔든다. 등은 다만 몇 글자만 더해도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동방은 모두 방언으로 지명이 되어 있어 지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용재 이행의 「천마록」, ‘가랑비 내리는 영통사. 해 저무는 만월대’와 소재 노수신의 「한강」, ‘봄은 저자도에 깊고 달은 제천 정에서 뜬다.’ 등의 시는 어찌 아름답지 않는가? 오직 단련의 묘에 달렸을 뿐이다.”<sup>47)</sup>라고 하였다.

최경창은 조선의 지명은 우아하지 못하여 시어로 구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허균은 노수신의 시를 예를 들며 조선의 지명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이를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강서시파의 주장인 “點綴成金”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다. 이 두 작품은 역대 시선집에 골고루 뽑혀있는 형편이고 『國朝詩刪』에도 황정견의 “以俗爲雅”와 동의어인 “變俗作雅”라는 말로 높게 평하였다. 흥만중도 세속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이행과 노수신등이 당시 사람들이 기피하던 조선의 지명을 시어로 구사하여 새로운 표현을 개척했음을 지적하였다.

- ① 一宿豐田驛    하룻밤은 풍전역에서 자고  
     已攀孤石亭    이미 고석정에 기어 올랐다<sup>48)</sup>
- ② 可愛我鄉里    정다운 내고향  
     尙州縣化寧    상주현 화령

47) 洪萬宗, 『小華詩評』 卷上, “世謂, ‘中國地名皆文字, 入詩便佳, 如「九江春草外, 三峽暮帆前」. 「氣蒸雲夢澤, 波撼岳陽城」等句 只加數字, 而能生色, 我東皆以方言成地名, 不合於詩云余以爲不然 李容齋天磨錄詩「細雨靈通寺, 斜陽滿月臺」盧蘇齋漢江詩「春深楮子島, 月出濟川亭」詩豈不佳? 唯在鑢錘之妙而已.”

48) 盧守慎, 『蘇齋集』 卷1, 「孤石亭」

黃山原撫撫 黃산의 들은 기름지고 아름다운데  
沙谷水冷冷 사곡의 물은 차고 맑게 흐르네<sup>49)</sup>

③ 昔道松都好 예전에 송도가 좋다고 말했는데  
今知漢邑尊 지금은 한양이 좋은줄 알겠네.  
一流前繞繞 물줄기하나 굽이굽이 앞을 흐르고  
三角後騰騫 삼각산은 뒤에서 뛰어 오르네  
東振尙鐵嶺 동쪽으로 철령을 향해 뻗어있고  
右通還劔門 오른쪽엔 검문으로 통하는구나<sup>50)</sup>

①의 시는 고석정에 올라 감회를 읊은 시다. 고석정과 평구역이 대를 이루고 있다. ②의 시 역시 금강산 기행 중 9일째 되는 날 지은 시다. 네 개의 구에 네 개의 지명을 쓰고 있다. 尙州와 化寧은 소재 시에서 자주 등장된다. 己亥 遊山錄의 시는 소재 25세에 여행시로 지은 것인데 그는 이 당시 강서시과류의 지명 구사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음을 살필 때 이미 작법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③의 시는 전체를 지명으로 지은 느낌이다. 미련만 빼고는 모두 시어로 구사하였다. 수구는 松都와 漢邑으로 대를 이루고 경련에서는 鐵嶺과 劔門이 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엄하면서도 어색한 느낌을 주지 않고 있다. 그의 지명 구사는 전 생애의 시에 나타나고 있음이 개인적 특성이기도 한 것이다.

그 외 口語體의 시어나 은어, 성어를 시어로 활용하면서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고 있으며<sup>51)</sup> 고시에서 속담이나 해학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52)</sup>

소재시의 특질로는 지명과 인명 이외에도 과감한 고유명사의 시어 선택이었다. 박은과 이행 등은 지명을 시어로 선택하여 쾌활한 미감을 창

49) 盧守愼, 『蘇齋集』 卷1, 「鄉人乞詩」

50) 盧守愼, 『蘇齋集』 卷5, 「望三角山」

51) 「送許佐郎箴朝天」의 6聯 참조. “令人釋氷炭, 其如二豎嬰[사람으로 하여금 솥과 얼음처럼 뒤엉키게 만드니]”

52) 「神勒寺次覺長老軸韻」의 尾聯 참조. “孤懷感泡沫, 萬事付澆書”

출하고 과거의 추억을 더듬게 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수신의 시어 선택은 기괴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생경하고 기이하다.

土虎春全幕	토호에 봄이 완전히 저물고
吳牛喘未蘇	오나라 소는 헐떡거림을 멈추지 않네.
初辭右議政	처음으로 우의정은 사직하고
使就判中樞	바로 판중추에 나아갔네.
睿澤深如海	영예로운 은택 바다처럼 깊고
慈恩潤似酥	자애로운 은혜는 煉乳처럼 빛나네
避賢仍樂聖	현자를 피하여 이에 청주를 즐기지만
能住幾年虛	능히 몇 년이나 노수신을 머물게 하리오. <sup>53)</sup>

노수신은 1573년 영의정 洪瀾의 죽음으로 의정부 반열에 들어 우의정에 배명된다. 그러나 부모 칭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선조의 각별한 총애로 윤택되지 못했다. 이 당시 무려 아홉 차례의 상소 끝에 윤택 받았으나 명예직인 判中樞府事에 임명되어 벼슬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작품이다. 노수신 시는 首聯이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 전형인데 吳牛<sup>54)</sup>를 통하여 간접 묘사 하였다. 수련에서 用辭를 기벽하게 하기 위하여 숫자 대신 계절을 나타내고 있다. “土虎”는 “土牛”와 같은 뜻으로 쓴 것 같으며 당시 제사지내던 기물이었다. “土虎”로 제사지내던 봄이 지나 4월에 들어서고 있음을 본다. 우의정에서 물러 난 4월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구는 두보의 「行次昭陵」 “往者災猶降, 蒼生喘未蘇”에서 뜻을 취했다. 위 시를 빌려 자신이 늙고 병들었음을 표현하였다. 頷聯은 點綴成金の 기법으로 관명을 이용하여 오히려 시의 우아한 맛을 더하고 있다. 허균은 『國朝詩刪』에서 “이 늙은이는 속된 것을 우아하게 만드는 솜씨를 보인다[此老, 善用俗作雅]”하고 있으

53) 盧守愼, 『蘇齋集』 卷6, 「遞右相」

54) 吳牛는 더운 여름을 지칭하며 李白의 「送蕭三十一之魯中兼問雉子伯禽」, “六月南風吹白沙, 吳牛啗月氣成霞”와 「丁督護歌」, “吳牛啗月時, 拖船一何苦” 등에서 용례가 보인다.

며 홍만중도 이 구절을 들어 노수신이 속어를 즐겨 구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55)</sup> 이 말은 강서시파가 구사하는 “以俗爲雅”를 지적하는 말로서 시어로 잘 쓰이지 않는 “初辭”와 “使就”라는 평어를 사용하여 俗을 隱蔽하였다. 허균도 이 구절을 “기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애써 만들려고 짜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지적하였다.<sup>56)</sup> 頸聯은 임금의 은혜를 말하였다. 한유의 「早春呈水部張十八員外」, “天街小雨潤如酥, 草色遙看近却無”에서 上句를 意取 하였다. “연유처럼 윤기 있다”는 표현은 매우 기발하고 생경하다. 尾聯에서는 李適之가 5년 후 우의정을 마치자 “避賢初罷相, 樂聖且銜杯. 爲問門前客, 今朝幾個來”를 지었는데 上句는 이 전고를 빌린 것이다. 청주를 聖人, 탁주를 賢人에 비유한 『魏志』의 고사도 함께 쓴 것이다. 노수신은 이 전고를 빌려 賢은 우의정을, 聖은 판중추의 뜻을 함께 싣고 있다. 이 구절은 새 현인에게 우의정을 양보하고 맑은 술을 즐기겠다는 뜻이다. 진도 유배기를 통한 두보의 학습은 “換骨奪胎”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이나 관명을 쓰는 것을 두보 시에 자주 보이는 바 노수신도 이를 배워 자신의 이름을 시에 적어 “以俗爲雅”의 논리를 실천한 것이다. 특히 이 詩에서 자기의 성을 韻자로 쓰고 있음이 특이하다.

### 3. 句法의 변화

중국의 강서시파는 한유를 배워 산문화된 송시의 특징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서시파를 이은 해동강서시파는 고시에서나 볼 수 있는 산문적 구법을 근체시에 원용하여 강건함을 창출하였다. 近

55) 洪萬宗, 『時評補遺』上, “盧守愼蘇齋, 光州人, 喜用俗語. 遞右相, 賦詩曰 ‘初辭右議政, 使就判中樞’”

56) 許筠, 『鶴山樵談』, p.15, “蘇齋·海阮蟲吟盡, 山風露氣收’之句 求之於少陵卷中, 亦不可多得. 初辭右議政 初辭判中樞 之句對偶大成不較思索. 其製先子神道碑, 平平無崛奇處, 抑亦用意於奇, 而反拙者乎?”

體詩는 五言의 2-3, 칠언에서는 2-2-3, 혹은 4-3의 형식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임에도 강서시파는 이러한 형식 외에도 五言詩에서는 1-4를, 七言詩에서는 2-5의 특이한 구법을 구사하고 있다. 산문적 문체가 이러한 특이한 문체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였다<sup>57)</sup>. 또한 句式의 변화를 杜法에 응용하여 정상적인 어순을 택하지 않고 도치된 句文을 사용하여 어세를 강하게 만들었다. 강서시파의 句의 조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實字와 虛字의 운용이다. 助字는 의미보다는 문법적 기능과ニュ앙스에 중점을 두지만 이에 대해 虛字는 實字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명사만이 實字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虛字가 된다.<sup>58)</sup> 해동 강서시파 중에서는 박은, 이행, 노수신이 실자에 능하고 박상, 정사룡, 황정욱은 허자에 강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노수신 시는 평범하고 ‘구어적인 시어’ 또는 ‘散文的인 언어’를 가져와 강건한 맛을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선의 지명이나 인명을 구사하고 있는 율시의 수련이나 미련이 대부분 강한 산문투로 되어 있으며 다음 시가 좋은 예이다.

① 萬瀑深深洞 일만 폭포 깊고 깊은 골짜기에,  
茲其第一流 이것이 천하제일이라네.<sup>59)</sup>

② 恭惟貞敬大夫人 삼가 생각하건대 정경 대부인은  
天外難知世未聞 하늘 밖에도 알기 어렵고 세상에서 듣지 못한 분이라.<sup>60)</sup>

위 시를 보면 ①에서 제일이라는 속어체의 시어나 茲其란 산문에나 쓰는 허자를 구사하고 있다. 上句에서는 깊고 깊은 골짜기에서 江의 始原을

57) 吳台錫, 앞의 책, pp.253-256.; 崔禁玉, 앞의 논문, pp.191-195.

58) 崔禁玉은 위의 논문, pp.206-210.에서 『詩人玉屑』, 『瀛奎律髓』를 인용하여 虛字의 概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59) 盧守愼, 『蘇齋集』 卷5, 「葩溪」

60) 盧守愼, 『蘇齋集』 卷6, 「洪政丞暹賜几杖宴席」

느낄 수 있고 다음 큰 물줄기를 연상하는 기발한 시상을 연출하였다.

②는 영증추부사 겸 領議政이었던 洪暹의 大夫人이 친정 부친과 남편 아들이 모두 영의정에 오르는 영광을 기리기 위한 작품이다. 上句에서 삼종의 도리가 재상의 문을 넘지 않았다고 평범하게 적고 있지만 모든 영예의 성취가 삼종의 도리를 다함에서 연유하였다는 三從을 주어로 선택하고 있음은 참으로 기발하다. 노수신은 산문에서 볼 수 있는 助字를 시에 자주 구사하여 후대의 비평가들이 이점을 노수신 시의 특징으로 부각시킨 것이 많다. 노수신의 시는 박상이나 정사룡의 그것과는 달리 述語를 억제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인 오언율시에서는 술어가 詩眼의 위치인 제3자에 놓일 때 강건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① 露菊憑烏几    이슬 맞은 국화는 검은 궤석에 기대고  
秋蟲掩竹扉    가을벌레 울자 대나무 사립문 닫노라.<sup>61)</sup>
  
- ② 落景鳴寒瀨    떨어지는 햇살에 찬 여울이 우는데  
秋風立古臺    가을바람은 옛 다락을 감싸네.<sup>62)</sup>

①에서 ‘露菊’는 統辭構造로 ‘憑’의 주어가 되지만 의미상 국화에 이슬이 내릴 때쯤으로 해석한다. 노국은 그 다음이 술어가 하나 더 필요하지만 과감히 생략하여 함축을 통한 강건한 맛을 풍기고 있다. “가을벌레가 울 때 대나무 사립문을 닫았다”는 뜻으로 풀이한 이 구절은 ‘秋蟲’의 술어가 생략되었다.

②에서도 ‘낙경’과 ‘추풍’이 각각 ‘鳴寒瀨’와 ‘立古臺’와의 통사구조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인과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의 경물을 제시하면서도 두 글자의 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저물어가는 저녁 햇살을 배경으로 하여 찬 여울물이 소리를 내고 있고 가을바람을 배경으로 하여 낡은 누대 가에 서있는 작가를 연상하게 한다. 오언

61) 盧守愼, 『蘇齋集』 卷4, 「別白文二生」의 頸聯  
62) 盧守愼, 『蘇齋集』 卷5, 「記和龍灘先生韻贈張克業」

율시가 뛰어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압축적인 句法에서 생기는 강건한 語勢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4. 典故의 적절한 활용

전고란 기왕에 존재하는 文學的, 歷史的 전통을 詩作에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강서시파의 전고 활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강서시파들은 독서를 특히 좋아하였는데 이것은 前代 시의 장점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리라고 본다. 前代의 시구를 변형하여 자신의 의경이나 표현에 적용한다는 설은 황정건의 “환골탈퇴”의 이론이다. 본래 모든 전고의 사용은 강서시파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나 다만 강서시파는 그 빈도가 많다는 것이다. 활용 빈도를 높이는 것이 강서시파의 이론인 것이다. 동시에 이들이 쓰는 전고는 窮僻한 내용의 전고를 작가의 상상력에 투과하고 있어 難澁함에 이르는 예가 있음도 사실이다.

노수신의 시는 句法이나 표현적 측면에서 “杜詩의 韓國的 再現”<sup>63)</sup>이라 할만하다. 노수신은 두보의 시를 2,000번이나 읽었다고 한다.<sup>64)</sup> 이렇진대 杜詩는 이미 노수신의 詩魂을 지배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의 작품은 한 구절의 전부로부터 한자에 이르기까지 두보의 시를 참작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杜詩의 시어가 녹아있어 두보를 읽는 듯한 미감을 줄 때가 많다.

- ① 莽蕩乾坤阻    아득히 천지는 막혀있으니  
蕭條性命微    쓸쓸히 성명은 미약하다.<sup>65)</sup>

63) 李鐘默, 『海東江西詩派研究』, 서울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148.

64) 『終南叢志』, p.385, “盧蘇齋讀論語杜詩二千回. 李東岳讀杜詩數千遍”; 柳夢寅, 『於野談』 卷上, p.26, “蘇齋 盧守慎 謫珍島十九年 … 於書無所不讀而偏論語及杜詩 至二千回”

65) 盧守慎, 『蘇齋集』 卷4, 「別白文二生」의 首聯

② 近侍舊臣還浪跡      가까이 모시던 옛 신하는 떠도는 신세인지라,  
白頭南望思無窮      흰머리로 남쪽 바라보니 생각은 끝이 없네.<sup>66)</sup>

③ 名利身猶縛      명리에 몸은 오직 묶여있는데  
山林迹若疎      산림에서 그대의 행실은 소탈한 것 같구나.<sup>67)</sup>

①의 上句는 「杜甫奉寄河南韋尹丈人」, “牢落乾坤大, 周流道術空”과 「有懷台州鄭十八司戶」, “相望無所成, 乾坤莽回互”, 「宿清溪驛奉懷張員外十五兄之緒」, “月明遊子靜, 畏虎不得語. 中夜懷友朋, 乾坤次深阻.” 등에서 시어와 의경을 빌려왔다. 下句는 盧守愼이 上句와 어울리는 새로운 의경을 만든 것이다. ②는 「杜甫曲江陪鄭八丈南史飲」, “近侍即今難浪跡, 此身那得更無家”의 上句와 「秋興」, “綵筆昔遊干氣象, 白頭吟望高低垂”의 下句를 연결하여 한연을 구성하였다. 서로 다른 문맥에서 구사되었던 의경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의경을 창출한 예이다. ③은 杜甫 「夜聽許十一誦詩愛而有作」, “余亦師粲可, 身猶縛禪寂”, 「贈李白」, “苦乏大藥資, 山林跡若掃”를 上句와 下句에 두어 새로운 의경을 창출 하였다.

소재는 전고를 통하여 새로운 의경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1) 다른 문맥에 쓰인 두보의 시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미감을 형성하는 방법과 (2) 두보의 시구를 차용하면서 그 뜻을 보충하여 새로운 의경을 구성하는 것과 (3) 부분적으로 글자를 바꾸거나 보충하여 새로운 미감과 의경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 5. 意境의 按排

강서시과의 작법 중 變容의 원칙보다 더욱 중요시 하는 것이 “의경의 안배”이다. 강서시과의 鼻祖인 황정건의 시는 장·단편을 떠나 단계적

66) 盧守愼, 『蘇齋集』 卷6, 「親祭康陵扈駕感吟」의 尾聯

67) 盧守愼, 『蘇齋集』 卷5, 「神勒寺次覺長老軸韻」의 頸聯

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주희는 황정견 시의 이러한 특징을 간파하여 소식은 재주가 뛰어나 거대한 물이 흘러가듯 남은 뜻이 없도록 써내려갔지만, 황정견은 안배에 주력했다고 비교한 바 있다.<sup>68)</sup> 文言으로 공부한 우리나라 강서파들은 의경의 조직에 대하여 많은 공을 들였었다. 노수신 시중에서 많은 부분이 贈別詩이다 이것은 그가 살았던 상황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적거기간 그를 찾는 동생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석별을 아쉬워하는 많은 시작을 하였다. 또 유배지의 상황 변화에 따른 관련 시들이 주로 창작되었다.

林開二水會	강물 만나는 곳에 수풀 열리고
天遠數峯尖	먼 하늘엔 뽕쪽한 봉오리 몇 개.
古迹神龍去	신령스런 용이 가버린 옛 자취.
幽期道士潛	숨은 도사가 비밀스런 약속을 가졌던 곳
黃精日中飫	낮에는 황정으로 배 채우고
白石夜來添	밤에는 백석으로 안주했다네.
擬逐桃花浪	복사꽃 실어 흐르는 물 쫓아가려했는데
人心到底嫌	가는 곳마다 웃음거리 될까봐 걱정이네. <sup>69)</sup>

이 시는 1547년 忠州에서 순천 이배 길에 化山을 보고 읊은듯하다. 首聯은 먼 수풀사이로 전개되는 강의 풍정과 그 사이에 보이는 뽕쪽한 몇 개의 봉오리를 보면서 시상을 열고 있다. 頷聯에서는 화산의 신령함 속에 자신의 처지도 잊고 있다. 봄에 꽃이 핀 山水 주위의 경물과 그윽한 분위기에 걸맞게 옛날 神龍이나 道士들의 傳說스런 이야기로 시상이 변한다. 神龍과 도사를 對로 처리하였다. 頸聯에서는 백석도사가 낮에는 황정이라는 풀로 배를 채우고 밤에는 백석을 먹었다고 하였다. 백석을 먹는다는 것은 과장법의 표현일수 있지만 劉向의 『列山傳』<sup>70)</sup>에 보면 당

68) 莫礪鋒, 『江西詩派研究』, 齋魯書社, 1986, p.49.

69) 盧守愼, 『蘇齋集』 卷1, p.41, 「道望火山」

70) 劉向, 『列山傳』, “白石先生者中黃道人弟子也. 常者白石爲糧, 因就白石山居亦

시 도사들은 백석을 먹었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있으나 그 실체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백석을 먹는다는 표현은 괴이함과 신비로움을 가증하며 시상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화산은 충주에 있는 도인들의 도량으로 생각했음직하다. 마지막 연에서는 청운의 꿈을 안고 관직에 오른 지 3년도 못되어 충주에 안치되고 다시 순천으로 이배되어 떠나가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복사꽃을 찾아 도원경을 꿈꾸어 왔으나 그렇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다.

二儀清濁元分一 건곤의 청탁은 원래 하나에서 나누어졌고  
百代興亡競合三 백대의 흥망이 셋을 합했네.<sup>71)</sup>

노수신은 위 詩에서 乾坤과 백년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광대한 對偶로 구성하여 방대한 스케일을 그리고 있다. 하늘과 땅이 열린 이래 삼국이 정립된 이후 요충지인 탄금대를 갖기 위한 각축의 역사를 연상하게 하고 결국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을 이루었음을 상기하게 한다. 허균은 『國朝詩刪』에서 “우주를 지탱 할 만큼 웅장한 기세를 과시한 구절이다”라 하였다. 또 위 詩를 통하여 노수신은 철학적 용어를 구사하여 上句는 원리를 말하고 下句는 현상을 對偶로 並置시킴으로써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고 있다.

二八初夜秋 열엿새 되는 초가을 저녁에  
三千弱水前 삼천리나 되는 약수를 앞두었다.  
昇平好樓閣 태평시절이라 누각이 좋은데  
宇宙幾神仙 우주에는 신선이 몇이나 있는고.  
曲檻清風度 굽은 난간으로 맑은 바람 지나가고  
長空素月懸 긴 하늘에는 흰 달만 걸려있다.  
愀然發大嘯 초연히 긴 휘파람소리를 내니  
孤鶴過蹁躚 외로운 학이 너울대며 지나간다.<sup>72)</sup>

食脯飲酒食穀 日行四百里 容貌不衰”

71) 盧守愼, 『蘇齋集』 卷5, 「彈琴臺用訥齋韻」 其一

72) 盧守愼, 『蘇齋集』 卷1, 「十六夜喚仙亭」

열댓세 되던 밝은 달밤에 신선을 부른다는 喚仙亭에서 정자에 올라 감회를 읊은 시다. 정자에 있는 자신이나 그 주변의 일을 한 줄로 하고 멀고 아득한 곳을 향하는 마음을 또한 하나로 하여 계속 엇바꾸어 나타내면서 독자도 신선을 연상하게 만든다. 미풍도 일지 않아 고요하고 잔잔한 弱水를 건너야 신선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니 그 자리 하얀 달 사이에 너울거리는 학이 등장하여 인간세상을 초탈한 의경을 보여주고 있다.

## V. 盧守愼 詩의 品格

노수신이 남긴 작품은 허균에 의하여 높은 평을 받았으며 특히 그의 『國朝詩刪』에 매우 많은 시를 수록하고 있음을 본다. 노수신 시는 크게 두 분류로 보는데 하나는 강서시파의 영향을 받아 기이하면서도 웅장한 미감을 주는 것이며 하나는 두보의 시풍에 침잠하여 唐詩의 맑고 웅장한 풍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노수신은 두보의 시를 배워 결국 강서시파가 추구한 비속한 시어를 “以俗爲雅”로 다듬어 훌륭한 의경을 창출하였으며 자신의 이름이나 간지와 연호, 관직, 이름 등 기존의 시에서 찾아보지 못한 고유명사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진부한 시어와 의경에 식상해있던 당시의 분위기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허균의 『國朝詩刪』과 각시화류의 평을 통하여 소재시의 품격상의 특징을 살피고자한다.

그의 시풍에 대하여 權應仁은 “소재 상국의 시는 두시를 오로지 학습하여 순정하고 노아하다.”<sup>73)</sup>라고 평하고 있으며, 梁慶遇는 “노소재의 오언율시는 杜法에 충실하여 일자일언이 모두 두보로부터 나왔다.”<sup>74)</sup>고

73) 權應仁, 『松溪漫錄』 下, “蘇齋相國之詩 專學老杜 純正老雅.”

74) 梁慶遇, 『霽湖詩話』, “盧蘇齋五言律 酷愛杜法 一字一言皆從杜出”

하였다. 허균은 “소재의 ‘해월에 벌레 소리 걸치고 산바람에 이슬기운 거두네’의 구절은 少陵[杜甫]의 시권에서 구하더라도 많이 얻지 못한다.”<sup>75)</sup>고 하였다.

梁慶遇는 「霽湖詩話」에서

옛날 己酉年(1609)에 詔使가 배를 띄웠는데 ... 典籍 車雲老가 팔을 걷고 크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小家の 작품은 비록 한 篇, 한 句는 읊을 만한 것이 있지만 여기저기서 주어모아 연약하고 조잡하며 삭막하여 기력이 없다. 蘇齋의 작품에 이르면 萬鈞이나 되는 勢가 있으니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풀 사이의 귀뚜라미들이 울다가 큰 종소리를 듣고 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遊金剛山이라는 장편을 시 한수를 들어 외우다가 그 중에 “구름 낀 늪은 소나무 서있는 어둑어둑한 골짜기요, 지는 해에 얇은 물가의 위태로운 다리로드.[屯雲古檜陰陰洞, 落日危橋淺淺灣]”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세 번이나 영탄 하였다. 내가 보기에 위의 구는 渾厚하고 아래의 구는 古雅하면서도 맑아, 경중이 고르지 않은 것 같다.<sup>76)</sup>

라고 하였다. 李晬光은 『芝峯類說』에서 “한때 세상에서 칭송할 뿐 아니라 입에 올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구어가 우체를 면치 못하였으니 시를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sup>77)</sup>라고 하였고, 李瀾은 『성호시화』의 「詩文門」에서 “소재의 시는 俚語가 많이 섞여서 사람들이 그 雅하지 못함을 흠으로 여기고 있지만, 근량이 매우 무거워서 마치 열석무계의 활을 당기는 것처럼 활시위에 걸때부터 관솔에 이르기까지 털끝만큼이라도 그 힘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이른바 공중을 가로질러 억

75) 許筠, 『惺叟詩話』, “蘇齋‘海月蟲音盡 山風露氣收’之句 求之於少陵卷中 亦不可多得.”

76) 梁慶遇, 「霽湖詩話」, 『詩話叢林』, (6). “昔在己酉, 詔使之遊漢江也. ... 車典籍 雲輅, 攘臂大呼曰, 小家之作, 雖一篇一句可吟, 掇拾纖碎 索無氣力, 至於蘇齋之作, 有萬鈞之勢, 安敢與之爭衡也. 無異草間蟋蟀, 遇洪種而止 因舉遊金剛山長律一首, 而誦之. 其‘屯雲古檜陰陰洞 落日危橋淺淺灣’之句 三復咏嘆以余觀之, 上句渾厚, 下句雅亮, 輕重似不均稱矣.”

77) 李晬光, 『芝峯類說』, “一時稱誦 不啻膾炙 而句語未免優體 詩可易言哉.”

센 말이 서리었고, 포근히 가라앉아서 힘이 더욱 건장하도다.”<sup>78)</sup>고 하여 전아하지 못한 부분과 억세고 힘찬 경지를 함께 비교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解配후의 소재에 대한 평을 살펴본다. 南容翼은 『壺谷詩話』에서 “내가 사건으로 망명되어 高麗와 朝鮮의 시를 논할진대 鄭湖陰 士龍은 鍊悍하고, 盧蘇齋 守愼은 淵宏하며, 黃芝川 廷彥은 典特하다.”고 하였다.<sup>79)</sup> 洪萬宗도 “세인들이 근대 명가를 청함에 만드시 湖蘇芝를 말한다. 湖陰은 組織精緻하고, 蘇齋는 雄拔富瞻하며, 芝川은 橫逸奇偉하니 참으로 가히 相角한다.”<sup>80)</sup>고 말하였다. 이로 미루어 湖蘇芝를 말할 때 당시의 시문학에서 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소재의 시는 ‘淵宏’, ‘雄拔’하다는 평이 두드러진다. 農巖 金昌協은 그 중에서 소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노소재의 시는 宣祖初에 가장 뛰어났다. 세상에서는 湖蘇芝라고 말하지만 세분의 시는 실로 같지 않다. 湖陰의 組織鍛鍊한 것은 西崑體와 비슷하나, 풍격은 蘇齋만 못하니 소재가 그 중 나을 것이다.<sup>81)</sup>

호소지를 상호 비교하면서 소재의 시풍이 가장 낫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별본 『東人詩話』에서는

세상에서 호소지를 일컬으나 三家의 시는 실로 같지 않으니 호음은 조직이 단련하여 西崑과 같으나 풍격은 소재, 지천만 못하고 교건기굴은 황·진으로부터 더 나왔으나 宏放은 소재에게 미치지 못하니 소재가 가장 우수하다.<sup>82)</sup>

78) 李瀼, 『星湖僊說』, 「詩文門」, “蘇齋之詩 多雜俚言 人謙不雅 然斤兩甚重 如挽十石弓 自始鉤鉉 至穀率 毫髮不可怠其力 所爲 橫空盤硬語 妥帖力排.”

79) 南容翼, 『壺谷詩話』, p.387, “余以臆見 忘論勝國與本朝之詩曰, ‘鄭湖陰士龍之鍊悍, 盧蘇齋守愼淵宏, 黃芝川廷彥之典特.’”

80) 洪萬宗, 『小華詩評』, p.792, “世稱近代名家 必曰 湖蘇芝 湖之組織精緻 蘇之雄拔富瞻 芝之橫逸奇偉 眞可相角.”

81) 金昌協, 『農巖集』, 「雜識」外, “盧蘇齋詩 在宣廟初 最爲傑然 世稱湖蘇芝 然三家詩實不同 湖陰 組織鍛鍊 頗似西崑 而風格不如蘇 蘇齋其最優乎.”

호음과 비교하여 자신이 오언율시에 뛰어난 반면 湖陰은 칠언율시에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金萬重은 『西浦漫筆』에서 두 사람을 다 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소재가 스스로 말하기를 “七律은 湖陰만 못하나 五律은 낫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심히 옳다.<sup>83)</sup>

이에 대해 호음은 “그대의 여러 체가 어찌 나의 일률을 당하오리”하고 응수하여 자기 詩의 자부심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sup>84)</sup> 이것은 칠언이 호음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이해될 수 있거니와 칠언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또 칠언이 應制의 형식으로 알맞은 詩型이기 때문이며 應制詩는 임금이 운을 내릴 때 즉각 화답해야 하는 것임에 ‘應口輒對’의 숙련을 거쳐야 되는 바 館閣文人으로서 수많은 단편을 거치고 타고난 문학성을 갖추고 있는 호음의 당당함이었으리라고 본다.

이밖에도 ‘蘇之五律’, ‘湖之七律’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 바, 대부분 소재의 五律은 문자의 推敲와 문자의 婉絶하기가 老杜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견해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재의 시는 ‘沈鬱’, ‘悽惋’하다는 시평이 있기는 하나 유배기의 시에 대한 부분적 평가로 보이며 전체적인 시풍은 ‘雄拔’, ‘淵宏’, ‘富瞻’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배기 동안 학문에 精研하여 得力한 것이 왕성한 詩作을 통하여 그의 詩世界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82) 『東人詩話』, “世稱 湖蘇芝 然三家詩實不同 湖陰組織鍛鍊似西崑 而風格不如 蘇齋. 芝川 矯健奇崛出自黃·陳而宏放不及蘇齋 其最優乎.”

83) 金萬重, 『西浦漫筆』, p.622, “蘇齋自謂七律不如湖陰 而五律勝之 此言甚公”

84) 許筠, 『惺叟詩話』, “湖陰曰 渠之衆體 安敢當吾一律乎 其自重如此”

## VI. 結論

소재는 宦路에 들어선지 3년 만에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22년간을 유배지에서 보냈다. 그는 유달리 영민하여 소년시절로부터 학업에 전념하고 規矩로서 몸을 단속하여 큰 명망을 얻었다. 그러나 소운 일파인 李崐을 탄핵한 죄로 배척 당하여 본인의 삶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配所에서 풀려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행을 學問研鑽과 詩作을 통하여 타인들이 宦路에서 당쟁과 개인의 영달에 함몰되어 榮辱을 거치는 동안 孤島 珍島에서 오히려 궁벽한 인생을 살면서도 절망적 환경을 超克하고 학문에 沈潛하여 이천여 회에 달하는 두보 시와 논어를 읽어<sup>85)</sup>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杜甫의 내면세계에 흐르는 神韻과 영감을 얻었고, 논어를 중심으로 얻은 해박한 학문은 당시 절대적 중심 사상이었던 주자 성리학에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었다. 유배 중에 「困知記拔」과 「夙興夜寐箴」, 「執中說」, 「大學章句」 등을 발표하였다. 소재는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했는데 그가 제시한 「人心道心說」은 조선의 氣哲學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理氣一元論’에 대한 하나의 학설을 정립하는 성과를 거두고 양명학의 지평을 열게 하였다. 소재는 두시를 섭렵하여 시의 작법과 두보의 내면 정신세계를 함께 融攝하여 해동강서시파의 “以俗爲雅”와 “換骨奪胎”의 이론을 실천하고 나름의 시격을 정립하였다.

또한 강서시파의 특징인 拗體의 시도를 통하여 平과 仄을 적절히 변용하여 律格的 참신성을 구사하였다. 특히 요체에 능한 두시를 배우면서 자신의 시에도 이를 자주 구사하여 해동강서시파 중 朴闇과 더불어 요체의 구사에 가장 능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sup>86)</sup> 또한 글자를 奇癖하

85) 『終南叢志』, p.386.

86) 李鐘默, 앞의 논문, p.42.

게 운용하기 위하여 述語를 중심으로 平易한 글자를 기이하게 단련하여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의 장처인 5언 율시에서 술어의 단련을 꾀하고 있음을 본다. 보통 술어는 詩眼인 제3자가 앞 글자의 술어가 되지만 노수신 시는 뒤 제2글자가 술어가 되어 도치되는 경우의 시를 쓰는 것도 그의 특징이다.

특히 서술어인 動詞의 조련에 공을 들이며, 강서시파의 이론인 “以俗爲雅”의 논리를 바탕으로 당시 금기시 했던 비속어와 지명, 관직, 간지, 일자들의 시어구사를 과감하게 수용하였고 또 철학적 개념어를 시어로 구사하고 사물의 원리와 형상을 對偶로 並置하여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였다. 특히 소재는 조선 지명이 방언으로 되어있어 시어 선택으로 부적절하다고 금기시했던 것을 시어로 적극 구사하였다. 이에 허균은 소재의 지명 구사가 강서파의 “點綴成金”의 이론에 부족함이 없다고 진전된 이론을 전개하면서 다만 어떻게 단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보이며 『國朝詩刪』에서도 황정건의 이론인 “以俗爲雅”와 동의어인 “變俗作雅”라는 말로 높게 평가하였다. 홍만중 또한 소재의 지명 구사가 격이 높은 수준임을 찬사하고 있음에 비추어 소재가 지명사용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시에는 산문에서나 볼 수 있는 助字를 자주 구사하여 후대의 비평가들이 노수신 시의 특징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소재는 典故를 적극 활용하여 “換骨奪胎”를 실현하였다. 그 방법은 ① 두보의 시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미감을 형성하거나 ② 두보의 시구를 차용하여 그 뜻을 보충하고 새로운 의경을 구성하며 ③ 또는 부분적으로 글자를 바꾸어 새로운 미감과 의경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강서시파의 비조 황정건의 작법에서 가장 특징되는 것이 치밀한 意境의 安排와 조직이다. 노수신 시는 주로 유배기간의 상황이 주로 증별의 시를 쓰게 하였다. 노수신의 시는 起·承·轉·結의 원칙을 지켜 시상을 열고 상황을 극대화하여 고조시키고 尾聯에서 시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적절히 안배하여 항상 긴장감을 갖도록 하였다.

노수신은 강서시파가 추구하는 “性情美學”의 경지를 넘어서 두보도

아니고 황정견도 아닌 “두보의 조선적 再現”을 이룩한 것이다. 이는 노수신이 두보를 배웠지만 두보의 시가 노수신의 정신 속에 용해되어 詩學에서 최고의 경지를 가리키는 “融化自然”에 이르렀다는 표현일 것이다.<sup>87)</sup>

소재문학의 文學史的 意義는 16세기 시풍의 轉換을 先導하였고 朝鮮 官人文學을 頂上으로 올려놓은 공로 외에도 갖은 풍진을 超克하여 후반기의 영광을 성취시켜 宦路의 정상에 올랐고 그는 유배기에 朱子學과는 이질적인 새로운 心性論과 修養論을 주장하여 조선 기철학과 陽明學의 지평을 열었으며 그가 살았던 桎梏의 삶 속에서도 忠君愛民의 좌표가 흔들림이 없이 지조를 지켰다. 그러하기에 그는 宣祖 등극 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으며 後學들의 존숭의 대상이 된 것이다.

소재를 평함에 있어 강서시파의 일군으로써 宋詩派로 구분하는 데는 주저 할 수밖에 없다. 소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15세기 전반에 흐르고 있었던 황·진의 송시문학을 두루 섭렵하면서 그들이 지향하는 ‘以俗爲雅’와 ‘換骨奪胎’의 이론을 섭렵하고, 30대 초에 絶島에 안치된 후로는 當時의 지배사상인 朱子 性理學에 異義를 달고 二氣一元論의 思惟에서 배태된 ‘以我觀物’의 자세로 파격적인 시를 창작하였다. 그는 이후 2천회가 넘는 두보시를 접하면서 杜詩에 매료되었으며 유배기의 詩 다수가 杜甫의 신운을 감지하게 된다. 그의 시는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에 접목시켰으며 정형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典範的인 한시 양식을 따르면서도 다만 강서시파 이론인 시어를 거침없이 선택하였고, 句法을 변화시키고, 拗體를 활용하였다. 문학적 기교보다는 現象의 감각에서 경험을 축적하여 동태적인 시를 구사하였다<sup>88)</sup>

87) 吳台錫은 앞의 책, pp.174-181.에서 黃庭堅 詩論의 最終的 指向이 ‘融化自然’에 있었다고 밝혔다.

88) 梅花나 菊花를 읊은 詠物詩를 통하여 物像을 감각적으로 감지하여 色彩, 姿態, 霧圍氣를 動態的으로 구사하였으며 九魚歌 등에서는 여러 물고기의 움직임을 세밀하고 事實的으로 실감나게 형상화하였다.

본 논문은 소재의 詩作이 두보를 통하여 신운을 얻은 배경으로 해동 강서시파의 중심 이론인 ‘以俗爲雅’에 의하여 시가 만들어진 배경과 그의 내면 시세계를 고찰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앞으로 湖蘇芝 文學과 三唐派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선 초·중기 문학을 상호 비교, 입체적으로 구명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參考 文獻>

- 權 近, 『入學圖說』, 경문사, 1982.  
 奇大升, 『高峰集』, 『韓國文集叢刊』 40, 民族文化推進黨, 1989.  
 金萬重, 『西浦漫筆』, 『韓國詩畫叢書』 4, 東西文化社, 1989.  
 金麟厚, 『河西集』, 京仁文化社, 1987.  
 金昌協, 『農巖全集』, 景文社, 1980.  
 盧守愼, 『蘇齋集』, 『韓國文集叢刊』 35, 민족문화추진회, 1990.  
 盧 禎, 『玉溪集』, 『韓國文集叢刊』 37, 민족문화추진회, 1989.  
 柳成龍, 『困知記』, 禮文印書館, 1965.  
 柳希春, 『眉巖日記』, 潭陽鄉土文化研究會, 1993.  
 徐居正, 『東人詩話』, 昨盛社, 1980.  
 申 欽, 『晴窓軟談』, 『象村集』, 景文社, 1982.  
 王守仁, 『陽明全書』, 中華書局, 1970.  
 陸九淵, 『陸象山全集』, 世界書局, 民國 60.  
 李德懋, 『國譯 靑莊館全書』, 民族文化推進黨, 1983.  
 李晔光, 『芝峯集』,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1974.  
 ———, 『文章部』, 『韓國文集叢刊』 36, 민족문화추진회, 1989.  
 李 瀾, 『星湖僊說』, 民族文化推進黨, 1982.  
 李 俊, 『蒼石集』, 『韓國文集叢刊』 88, 민족문화추진회, 1991.  
 鄭經世, 『愚伏集』, 『韓國文集叢刊』 68, 민족문화추진회, 1991.  
 朱 熹, 『朱子大全』  
 許 筠, 『惺所覆瓿藁』, 민족문화추진회, 1991.

- 許 穆, 『國譯 眉叟日記』, 民族文化推進黨, 1982.
- 洪萬宗, 『詩話叢林』, 『洪萬宗全集』, 太學社, 1980.
- 『大東野乘』, 民族文化推進黨, 1970.
- 강명관, 「許筠과 明代文學」, 『민족문학사연구』 13호, 민족문학사학회, 1998.
- 김미영, 「朱熹의 佛敎 批判과 工夫論 研究」, 고려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8.
- 김성연, 「蘇齋 盧守愼의 流配期 漢詩에 나타난 動植物 象徴에 대하여」, 『韓國漢詩作家研究』 5, 漢詩學會, 太學社, 2000.
- 김용재, 「退溪의 陽明學 批判에 대한 考察」, 『陽明學』 3, 韓國陽明學會, 1999.
-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太學社, 1994.
- 朴守川, 「國朝詩刪의 選試觀研究」, 서울대학교원 博士學位論文, 1986.
- 宋雋鎬, 『韓國名家漢詩選』, 文獻과 解釋社, 1999.
- 송희철, 「羅整庵의 困知記와 奇高峯, 李栗谷의 主氣論」, 『韓國의 哲學』 21호, 慶北大 退溪學研究所, 1993.
- 오태석, 『黃庭堅詩研究』, 경북대출판부, 1991.
- 이가원, 『朝鮮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 李丙疇, 『韓國漢文學上的 杜詩研究』, 東國大學校, 1981.
- , 『杜甫-詩와 삶』, 아시아문화사, 1989.
- 李敏弘, 『朝鮮後期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93.
- 李鐘默, 『海東江西詩派 研究』, 太學社, 1995.
- , 「朝鮮前期 漢詩의 唐風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第18集, 韓國漢文學研究會, 1995.
- 林燐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84.
- 全鎔大, 『韓國古典詩學史』, 麒麟院, 1988.
- 趙東一, 『韓國文學通史』 2, 知識産業社, 1983.
- 최금옥, 「陳師道詩研究」,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3.
- 崔珍源, 『韓國 古典詩歌의 形象性』, 成均館大學校 대동문화연구원, 1996.
- 莫礪鋒, 『江西詩派研究』, 齋魯書社, 1986.

## Abstract

*A Poem Literature of No Su-shin / Joe Hee Chang\**

Collection of Gangseo poems, whose poets began to appea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published in the end of Goryeo Dynasty and in the beginning of Joseon Dynasty, Gangseo Poetry Group said that they specified how to write a good poem and should learn it thoroughly. As they experienced the political difficulties, they gradually turned into resignation and comfort. People had good feelings toward the poems reflected their spirit. The poetry group which was called Haedong Gang Seo Poetry Group included Bak Eun, Yi Haeng, Bak Sang, Jeong Sa-yong, No Su-shin and Hwang Jeong-uk, was appear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Seon-jo. No Su-shin who was a member of Haedong Gang Seo Poetry Group embodied Hwang Jeong-gyeon's "Yi Sok Wi A" theory as the style of Yi Dynasty. Writing materials So Jae burst into strong feelings using alteration of Yo Chae(物體). He realized its essence in the middle of learning Du Bo who was good at Yo Chae. People blamed him because he used vulgarism, proverb, place name, name, sexagenary cycle, date in his poems, but some critics such as Heo Gyun, Hong Man-jong and so on praised him. That's why he had showed the stage of "Yi Sok Wi A(The ordinary things become beautiful)". As he arranged the real and the false letters well, it made its meanings strong through the inversion in the sentences. It was said that he with Bak Eun and Yi Haeng took pride in the arrangement of the real letters. He also created the new meanings through using the precedent(典故), combined, borrowed and altered the letters partially. He used them to broaden the boundary of its meanings. When he arranged the sentences, he made the

---

\* Lecturer of Sungshin Women's Univ. / hichang47@paran.com

appropriate sentences using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four steps in composition. No Su-shin had lived in exile for 22 years because of Ulsasahwa[乙巳士禍] three years after he entered the government. He was a genius and study very hard when he was young, so many people aspired him to be a great man. Although his exile was the ordeal for him because of the political cession, he read the Du BO and the Analects of Confucius more than two thousand times and mastered them. He established his theory which challenged the Neo-Confucianism and he obtained good results in his own way. He wrote papers such as Gon Ji Gi Bal[困知記拔], Suk Heung Ya Mae Jam, Jip Jung Seol, Yin Shim Do Shim Byeon[人心道心辨] and etc. He argued with Yi Hwang, Gi Dae-seung, Kim In-hu, Yi Hang several times. His philosophy included Na Jeong-am's theory different from Ju Ja Hak[朱子學]. That's why he took criticism from the civil servants who called his theory Zen Learning and heresy. He wrote 1023 out of 1449 works during his exile. Their theme was the affection and sorrow of the part, missing the family, comfort from the friendship, overcoming the despersion, passion for the scholarship, being loyal toward the king, loving people and diplomacy. He was good at 5-eun[五言] contrasted with Je Sa-eun proficient in 7-eun[七言]. So Jae influenced in the field of poem literature history and the realm of ideas. He embodied Du Bo as the member of Hae Dong Gang Seo Poetry Group in the style of Yi Dynasty and handed down the theory of the group to Choe Gyeong-chang, Baek Kwang-hun, Yi Dal.

**【Key words】** Ho San Ji, Hae Dong Gang Seo Poetry Group, Dang Poem,  
Yi Sok Wi A(The ordinary things become beautiful),  
Personality and affection become the beautiful scholarship

투고일 : 5월 1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